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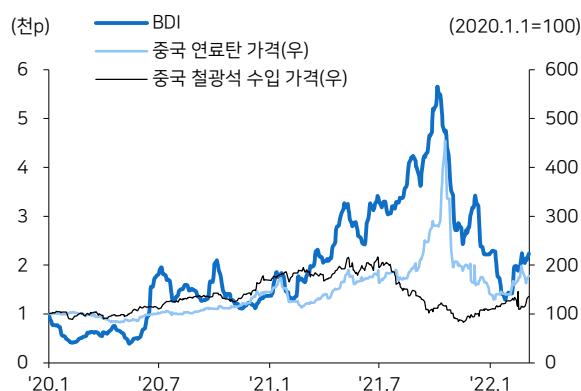
2022. 3. 8(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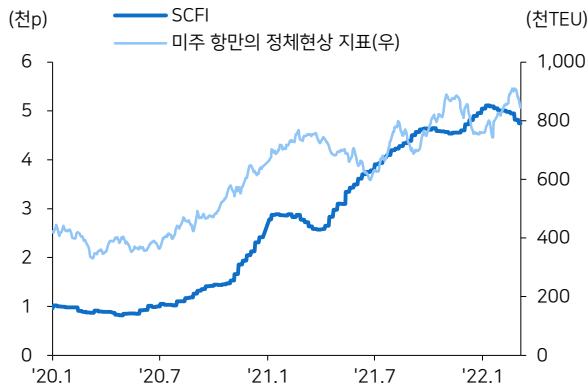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35.0p(+8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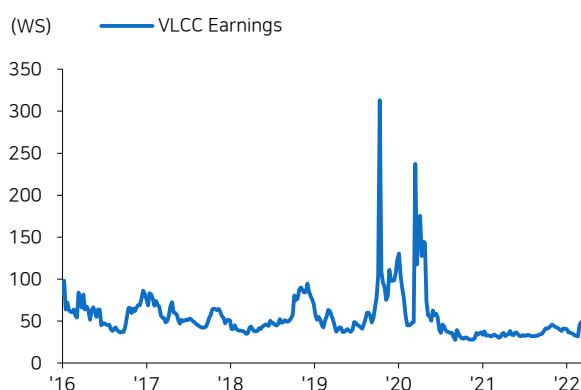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747.0(-71.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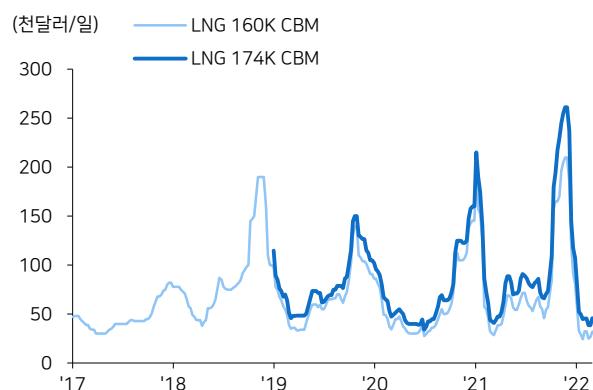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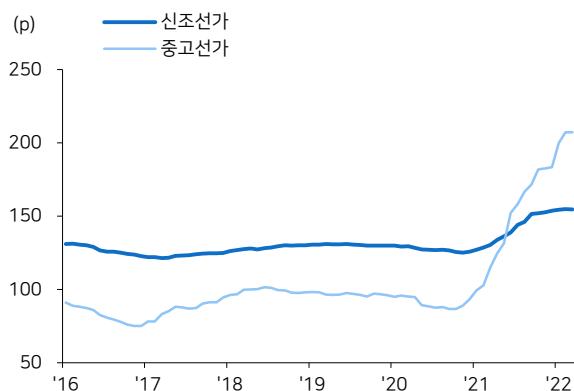
48.8(+3.6p WoW)



LNG Spot 운임

32.0p(+5.5p WoW)
45.8p(+7.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4p(+0.7p WoW)
207.2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88.9p(-)
92.8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한항공·아시아나, 러 모스크바 여객·화물기 2주간 운항 중단

대한항공·아시아나가 러시아 모스크바항 여객 및 화물기를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대한항공은 오는 10일 주 2회 운항하던 여객항공편부터 결항함.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유럽행 화물기도 우회경로로 운영함. 아시아나는 현재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유럽행 화물기를 주 7회 운영하고 있음. 지난 4일 기준 모스크바공항에서 연료보급이 불가하다고 확인됨. 다만, 정부 제재로 인한 운항중단이 아니기에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정상운항함. (서울파이낸스)

러시아 LPG수송 VLGC 7척씩 대체 투입돼야

매월 7척의 러시아산 가스를 수송할 VLGC가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도됨. 현재 서방국가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LPG물량은 많지 않아 50,000~70,000CBM급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음. 유럽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LPG는 월 30만톤 규모인데, 노르웨이·지중해·미국산 LPG를 수입하게 되면 매월 약 7척의 VLGC가 필요할 예정임. (선박뉴스)

UK dockers refuse to unload MR tanker carrying Russian oil products

영국 북서쪽 해안의 항만 근로자들이 러시아산 정유제품 수송선의 화물 하역을 거부했다고 보도됨. 해당 40,600DWT급 MR탱커는 Stanlow 정유소 인근에 정박했으나 화물하역을 거부당한 후 북쪽 외항으로 쫓겨남. 항만 노조측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러시아산 정유를 절대 하역할 수 없다고 강조함. (Tradewinds)

Poten says US ban on Russian oil would have 'fairly limited' effect on tankers

Poten은 미국의 공식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가 탱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됨.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있다고 설명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되면 기업들은 다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유럽연합이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전략적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함.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고운임은 유지될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Incredibly firm': Berge Bulk scraps another capesize as India ups price ideas

싱가포르 선사가 Capesize 벌크선을 660달러/ldt, 총 1,810만달러에 스크랩했다고 보도됨. VesselsValue의 평가액은 1,491만달러 수준이었음. 한 선박 스크랩 브로커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부족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함. 최근 7일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시장 모두 높은 폐선가격을 유지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지속 시 스크랩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한화시스템, 필리핀에 초계함 핵심 '전투체계' 수출

한화시스템이 필리핀에 함정 전투체계(CMS)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필리핀 초계함에 들어갈 예정임. 해당 초계함은 2025년까지 인도될 것으로 공시됨. (조선Biz)